

가

주의력이 결핍되고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사회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들과 이러한 행동문제가 없는 아동들의 또래수용도 및 친구관계를 비교하고, 행동 문제가 있지만 단짝 친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상호적 친구관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한 두 초등학교의 1-6학년 아동 987명중에서, 부모와 교사가 보고한 ARS(ADHD Rating Scale)를 기초로 선정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 100명과 비교집단 아동 48명이다. 부모와 교사는 부가적으로 CRS(Conners Rating Scale)에 응답하였고, 사회측정적 방법으로 연구대상 아동들의 '사회적 선호도'와 '또래 지위'가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상호적 단짝 친구'가 있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집단 아동들(N=36)과 비교집단 아동들(N=26)이 그들의 단짝 친구들과 함께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서 또래들에게 수용되거나 친밀한 친구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와 같은 문제는 품행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소수지만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집단 아동들 중에서도 또래들에게 인기가 있는 아동이 있었으며, 단짝 친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도 있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 중에서 상호적 단짝 친구가 있었던 아동들은 친구관계를 만족스럽게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친구에게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칭찬과 격려 및 도움을 주었던 아동들이었다.

주요어: 학령기 아동, 또래수용도, 친구관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품행장애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또래들 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거로부터 거부되기 쉽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 부된 아동들은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 문제들은 사 면서 습득하게 되는 사회적 기술들을 배우고

연습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거부된 아동들끼리만 어울리게 되어 부적응적인 사회적 행동들을 습득하게 된다.

학령전기나 학령기 동안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행동 문제 중에 하나로 주의력결핍 및 충동-과잉행동을 꼽을 수 있다(Bagwell, Molina, Pelham, & Hoza, 2001).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이 심해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로 진단된 아동들의 유병율을 살펴보면, 정보제공자, 표집의 특성 및 자료 수집 기준에 따라 다소 기복이 있지만, 국내외 모두 5-10%정도로 보고되고 있다(조수철, 신운호, 1994; Scahill & Schwab-Stone, 2000).

ADHD 아동들은 7세 이전에 발병하므로, 일반적으로 교육 기관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즉, 가정에서부터 다루기 어려운 기질로 인해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하면서 성장한다(Wicks-Nelson & Israel, 2000). 주의집중력이 떨어지며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ADHD 유아들이 유아교육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며 학습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essandri, 1992; DuPaul, McGoey, Eckert, & VanBrakle, 2001). Bagwell과 동료들의 종단적 연구(Bagwell, Molina, Pelham, & Hoza, 2001) 결과에 의하면, 또래로부터 거부되고 친밀한 친구관계를 맺기 어려운 ADHD 아동들의 사회적 부적응 행동들은 초등학교 시절을 거쳐 청소년기까지 일관되게 지속되었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청소년기가 되어 ADHD 증상이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감소한 후에도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형성의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아동

기의 ADHD로 인한 사회적 부적응의 효과는 장기적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학령기의 ADHD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거나 친밀한 친구관계를 맺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면밀히 조사해보면, 모든 ADHD 아동들이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Greene, Biederman, Faraone, Ouellette, Penn, & Griffin, 1996). 즉, 소수지만 일부의 ADHD 아동들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또래들과 잘 어울리거나 또는 친밀한 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연구의 초점을 ADHD 아동들의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에 맞추어 왔다. 그러나 만일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과잉행동과 같은 사회성 발달에 장애가 되는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 밝혀낸다면, 사회성 발달에 장애가 되는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들이 어떻게 또래집단에 적응하는지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주의력 결핍 또는 과잉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또래수용도와 친구관계를 이러한 행동 문제가 없는 아동과 비교 조사하고, 둘째 이러한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친밀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어떻게 만족스러운 친구관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지 조사하는 것이다.

ADHD와 사회적 능력

ADHD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서 또

래 수용도가 낮거나 친구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것은 ADHD 아동들의 사회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ADHD 아동들은 또래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며, 친구와 빈번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중심성이 강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기술도 부족하다고 한다(Gentschel, & McLaughlin, 2000). 그러나 Greene과 동료들(Green et al., 1996)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ADHD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무능한 것 같지는 않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ADHD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교집단 아동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무능한 아동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조건에서, 약 22%의 ADHD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무능하다고 평가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해 가는데 문제가 있는 아동들은 ADHD 아동 중에서도 사회적 능력이 떨어지는 일부의 아동들임을 알 수 있다.

Greene과 동료들(Green et al., 199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이 저하된 ADHD 아동들이 ADHD의 어떤 하위 유형에 속하는 아동들 인지는 조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Barkley와 동료들(Barkley, DuPaul, & McMurray, 1990)은 과잉행동 및 충동성이 사회적 행동의 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DSM-IV(APA, 1994) 이전 판인 DSM-III-R(APA, 1987)의 진단 기준을 참고로 충동-과잉행동이 우세한 ADHD 아동과 충동-과잉행동이 낮은 ADHD 아동을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충동-과잉문제가 없는 ADHD 아동에 비해 충동-과잉문제가 있는 ADHD 아동은 내면화된 그리고 외현화된 행동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들과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DSM-IV의 진단 기준에 따라 ADHD 아동을 세 가지 하위 유형(주의력 결핍 우세 집단, 충동-과잉행동 우세 집단, 두 가지 혼합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한 Gadow 등의 연구(Gadow, Nolan, Litcher, Carlson, Panina, Golovakha, Sprafkin, & Bromet, 2000) 결과는 다소 달랐다. 주의력 결핍 우세 집단에 비해서 혼합 집단 아동들이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결과는 Barkley와 동료들(Barkley, et al., 1990)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것이었다. 그러나 충동-과잉행동 우세 집단 아동들은 교사들에게 반항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는 했지만, 사회적 능력의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ADHD 아동들의 사회적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충동-과잉 행동때문만은 아님을 알려준다. 따라서 ADHD 아동들의 어떤 특성이 사회적 능력의 손상과 관련되어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ADHD와 품행장애

ADHD 아동들의 사회적 능력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충동-과잉행동이 아니라면, ADHD와 동시발생하는 행동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DHD 아동들의 절반 가량은 다른 행동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ADHD아동의 40%가 반항성 장애 및 품행 장애를, 10-29%가 학습 장애를, 15-75%가 기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eiss, 1992).

이상과 같은 동시 발생 장애 중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장애 행동은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품행 장애이다. Milich

와 동료들의 연구(Milich, Landau, Kilby, & Whitten, 1982) 결과에 따르면, 과잉 행동은 또래의 거부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또래집단에서의 인기도하고도 관련되는 반면에, 공격성은 또래의 거부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고 한다. 그리고 품행장애가 있는 ADHD 아동과 품행장애가 없는 ADHD 아동의 또래수용도를 연구한 McArdle와 동료들의 연구(McArdle, O'Brien, Macmillan, Kolvin, 2000)에서도 또래의 거부는 ADHD 증상만 있는 아동들이 아니라 ADHD와 품행장애가 함께 있는 아동들의 특징이었다고 한다.

ADHD 증상이 있는 아동과 ADHD와 품행장애가 함께 있는 아동들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부류의 아동 집단과 정상 통제 집단의 심리생리적 반응(psychophysiological response)의 차이를 비교한 Herpertz와 동료들의 연구(Herpertz, Wenning, Mueller, Qunaibi, Sass, & Herpertz-Dahlmann, 2001) 결과에 따르면, ADHD와 품행장애를 함께 가진 아동들만 심리생리적 반응에서 정상 통제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한편, 두 집단 아동의 인지 양식 차이에 관한 연구(Cadesky, Mota, & Schachar, 2000) 결과를 살펴보면, ADHD 아동들은 단지 사회적 단서를 지각하기 위해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품행장애 아동들은 사회적 자극을 부정적으로 (예를 들어, 분노를 일으키는 자극으로) 왜곡해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ADHD 아동들은 정서적 자극을 해석하는 능력도 일반 아동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았다(Singh, Ellis, Winton, Singh, Leung, Oswald, 1998).

이상을 종합하면, ADHD 아동들이 사회적 적응에 문제를 갖게 되는 한 경로를 추측할 수 있다. 즉, ADHD 아동들은 정서적 또는 사

회적 단서를 부정확하게 지각하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된다. 그리고 만일 이들이 품행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부정확하게 받아들인 사회적 단서를 부정적으로 왜곡해서 지각하고, 부정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자극은 그들 특유의 생리적 반응과 연계되어 다른 아동들의 거부를 초래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ADHD 아동들의 또래수용도와 친구관계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ADHD 증상과 함께 품행장애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ADHD 아동의 또래수용도 및 친구관계

사회측정적 방법을 사용하여, ADHD 아동들이 또래로부터 거부되고 또래집단에서 인기가 낮다는 연구 결과는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Bagwell et al, 2001; Flicek, 1992; Pelham & Bender, 1982). 그러나 ADHD 아동들의 이원적(dyadic)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고 ADHD 아동의 친구관계를 다룬 연구들 중에서 친구관계의 질이나 친구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관심을 둔 연구는 찾기 어려우며, ADHD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보다 친밀한 친구의 수가 적었다(Bagwell et al, 2001; Hinshaw & Melnick, 1995)는 보고가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ADHD 아동들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친구관계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조사할 수 있다. 양적인 측면으로는 ‘친구의 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질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는 친구의 다양한 사회·정서적 지원의 정도

를 통해서 측정될 수 있다. 친구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정서적 지원은 다양하지만, Aboud와 Mendelson (1996)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의 여섯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친구와 함께 하면서 얻게되는 재미와 즐거움을 나타내는 ‘교제의 즐거움’,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구적 지원을 해주는 ‘도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구가 필요한 것은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친밀감’, 안정되고 변함없는 관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신뢰’,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도록 도와주는 ‘인정’,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정서적 안정’의 여섯 가지 지원이 있다. 그러나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갈등’ 및 ‘경쟁’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은혜, 고윤주, 1999; Parker & Asher, 1993)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친구관계를 조사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이원적 친구관계에 포함된 두 친구를 모두 정보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한 친구의 보고를 기초로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 관계 안에서 진행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상호적 친구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즉, 친구사이에 주고받은 사회정서적 지원과 갈등 및 경쟁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 대상뿐 아니라 연구 대상 아동의 단짝 친구를 포함한 두 사람의 보고를 기초로 상호적 친구관계를 조사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 집단은 비교집단들에 비해 또래 집

단으로부터 수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둘째,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친밀한 이원적(dyadic)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셋째,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의 또래 및 친구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품행장애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들의 상호적 친구관계의 질이 행동 문제가 없는 아동들의 친구관계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보일 지에 대해서는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가설을 설정하지 않았다.

연구 대상

수도권의 두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987명 중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기준을 만족하는 100의 남녀 아동과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가 없는 남녀 아동 48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아동의 부모와 교사 그리고 단짝 친구가 함께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 아동들의 인구학적 변인들이 표1에 제시되어 있다. 표1을 참고하면,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 집단과 비교집단의 성비와 연령은 유사하게 분포되었으며, 모든 하위 집단에서 대략 80%의 아동이 ‘중증’ 또는 ‘중하’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측정 도구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정도는 ARS(ADHD Rating Scale) 부모용과 교사용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ARS는 DuPaul(1991)에 의해 개발된 아동용 ADHD 평가 척도로서, DSM-IV의 ADHD 진단 기준을 따라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부모 및 교사에 의해서 아동 행동의 심각도에 따라 0(전혀 또는 거의 아니다), 1(때때로 그렇다), 2(자주 그렇다), 3(매우 자주 그렇다)점으로 평정될 수 있으며, 2점 이상의 점수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ARS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만족스러운 수준이며(DuPaul, Power, McCoey, Ikeda, & Anastopoulos, 1998), 국내의 ARS 타당화 연구(소유경, 노주선, 김영신, 고선규, 고윤주, 2002)에서도 역시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 문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동시 발생 장애를 측정하기 위해서, 부모 및 교사용 CRS(Conners Rating Scale for teacher and parents)를 사용하였다(Conners, 1989). 부모용 CRS는 총 4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행 문제’, ‘학습 문제’, ‘정신 신체 문제’, ‘충동-과잉 행동 문제’, ‘불안 문제’의 5개 하위척도를 되어 있다. 교사용 CRS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행 문제’, ‘과잉행동’, ‘부주의-피동성’의 3개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CRS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은희, 소유경, 김영신, 최낙경, 김세주, 노주선, 고윤주, 인쇄중)에서도 일관되게 양호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래수용도: 사회측정적(sociometric) 방법을 사용하여 각 아동이 또래에게 선호되거나 거부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아동들은 자신의 급우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의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그리고 ‘옆자리에 앉고 싶은’ 친구 세 명과 그렇지 않은 친구 세 명을 각각 지명하였다. 또래로부터 긍정적으로 지명된 수와 부정적으로 지명된 수를 기초로 ‘사회적 선호 점수’(긍정지명-부정지명)와 ‘사회적 영향’(긍정지명+부정지명)점수를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변인

		비교집단 (n=48)	주의력 결핍 (n=33)	과잉행동 (n=19)	혼합집단 (n=48)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전체 (n=100)
성	남(%)	40(83)	30(91)	16(84)	40(83)	86(86)
	여(%)	8(17)	3(9)	3(16)	8(17)	14(14)
평균 연령		9.40	9.61	8.06	9.03	9.00
1-2학년	아동수(%)	18(38)	8(24)	14(74)	17(35)	39(39)
3-4학년	아동수(%)	15(31)	15(46)	1(5)	17(35)	33(33)
5-6학년	아동수(%)	15(31)	10(30)	4(21)	14(30)	28(28)
SES	중상	11%	4%	13%	2%	5%
	중중	67%	61%	53%	54%	56%
	중하	15%	22%	27%	36%	30%
	하	7%	13%	7%	8%	9%

산출하였고, Coie와 Dodge (1982)의 방법을 사용하여, 아동의 또래 지위(인기아, 보통아, 무시아, 거부아, 양극성아)를 산출하였다.

친구관계: 친구관계의 질은 초등학교 아동에게 적용하도록 국내에서 개발된 ‘친구관계의 질’ 척도(이은혜, 고윤주, 1999)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친구관계의 질’ 척도는 먼저 ‘가장 친한 동성 친구’ 한 명을 보고한 후, 전체 36문항에 대해 1(아주 조금 그렇다), 2(조금 그렇다), 3(많이 그렇다), 4(아주 많이 그렇다)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는 9개의 하위 척도(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교제의 즐거움, 갈등, 경쟁, 친구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를 가지고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 집단과 비교집단 선정 기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 집단과 비교집단을 선정하게 위해서, 본 연구 대상의 모집단이었던 전체 아동 987명을 대상으로 교사 및 부모용 ARS를 실시하였다. DSM-IV(1994)의 진단 준거에 따르면, 주의력 결핍 증상 9개중에서 6개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충동-과잉행동 증상 9개중에서 6개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각 범주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단, ADHD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이 7세 이전에 있었으며, 학교와 가정에서 동시에 관찰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다른 정신장애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모두 점검하는 임상적인 진단을

내릴 수 없었으므로, 학교에서의 행동을 반영하는 교사용 ARS와 가정에서의 행동을 반영하는 부모용 ARS에서 동시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즉 교사와 부모의 보고 모두에서,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주의력결핍 척도 문항이 6개 이상이고, 충동-과잉행동 척도 문항은 5개 이하인 경우는 ‘주의력 결핍’ 집단,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주의력 결핍 척도 문항이 5개 이하이고, 충동-과잉행동 척도 문항은 6개 이상인 경우는 ‘과잉행동’ 집단,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주의력 결핍 척도 문항과 충동-과잉행동 척도 문항이 모두 6개 이상인 경우는 ‘혼합’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987명 아동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100명의 아동이 세 하위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되었다. 비교집단은 부모 및 교사용 주의력 결핍 척도와 충동-과잉행동 척도 모두에서 2점 이상으로 평가된 문항이 없는 아동들 중에서 성비와 학년비를 고려하여 무선으로 48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연구에 참여했던 두 초등학교의 교사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어 협조를 구한 후, 학급단위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아동들에게 또래수용도와 친구관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 과정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은 비밀로 할 것임을 아동에게 주지시켰고, 조사가 끝난 후 부모용 ARS와 CRS를 배포하였다. 교사는 각자 개인 시간에 교사용 ARS와 CRS를 작성하였고, 회수된 부모용 질문지와 함께 연구자들에게 제출하였다. 전 자료 조사과정은 일주일 안에 이루어

졌으며, 각 아동의 행동 문제에 관한 정보가 부모에게 우편으로 전달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11.5를 사용하여 ²검증, 변량분석, 그리고 공변량 분석이 실시되었다.

가설 검증을 위한 사전 분석

ARS를 통해 선정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과 비교집단 아동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전에, 본 연구 대상의 모집단인 987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전 분석이 실시되었다. 먼저 연구 변인들이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였다. 그리고 ARS를 기초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아동을 세 집단으로 분류한 것이 타당한 지 CRS 점수를 가지고 확인하였다. 첫째, 남녀 아동의 차이를 일원 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모든 연구 변인에서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 및 교사의 ARS와 CRS로 측정된 아동의 행동 문제(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품행장애)는 모두 남자 아동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래수용도는 학년별로 남녀 각각의 표준 점수를 기초로 산출되었으므로 당연히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친구로부터 받은 여섯가지 지원은 모두 여자 아동들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갈등’과 ‘경쟁’은 남자 아동들에게서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연구 변인들의 학년차를 일원 변량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부모의 보고에 기초한 ARS와 CRS 하위 척도들에서는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

사의 보고에 기초한 ARS 및 CRS 하위 척도에서는 ARS 과잉행동 척도 (6-3<4-1학년), CRS 과잉행동 척도 (6-3<4-1학년) 및 품행장애 척도 (6-3학년<4-1학년)에서 유의한 학년차가 나타났다. 친구관계에서는 ‘정서적 안정’ (6-3>4-1학년), ‘친밀감’ (6-3>4-1학년), ‘동료관계의 자극’ (6-3<4-1학년), ‘경쟁’ (6-3<4-1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초점이 성차나 학년차 검증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수치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차 및 학년차를 보인 일부 변인들은 가설 검증을 위한 통계적 분석에서 통제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셋째, CRS 점수를 기초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 그리고 부가적으로 품행문제의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성과 학년차를 통제한 공변량 분석 결과 및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주의력결핍 집단’은 주의력결핍 점수가 ‘과잉행동 집단’은 과잉행동 점수가 ‘혼합 집단’은 두 가지 모두가 비교집단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고, 세 집단 모두 비교집단보다 품행 문제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ARS에 기초한 집단 분류가 타당함이 확인되었다.

또래수용도의 두 집단간 차이검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비교집단과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하위 집단간의 양적 비교가 가능한 ‘사회적 선호’ 점수와 ‘사회적 영향’ 점수를 비교하였다. 표3에 제시된 것처럼, 성과 학년차를 통제한 공변량 분석에서, ‘사회적 선호’ 점수와 ‘사회적 영향’ 점수

표 2.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 집단과 비교집단 아동의 행동 문제 평균(SD) 그리고 성과 학년차를 통제한 공변량 분석결과

	비교집단 (n=48)	주의력 결핍 (n=33)	과잉행동 (n=19)	혼합집단 (n=48)	F
주의력 결핍					
교사 ¹⁾	6.68(1.42) ^a	19.15(3.79) ^c	16.63(3.56) ^b	19.63(3.65) ^c	112.75***
부모 ²⁾	5.21(1.23) ^a	6.58(2.12) ^{bc}	6.12(1.73) ^{ab}	7.88(1.98) ^c	18.19***
과잉행동					
교사 ³⁾	7.81(1.28) ^a	13.58(3.26) ^b	17.10(3.45) ^c	19.96(2.89) ^d	155.58***
부모 ⁴⁾	4.74(1.14) ^a	6.00(1.89) ^{ab}	6.47(2.32) ^b	6.95(2.02) ^b	11.10***
품행 문제					
교사 ⁵⁾	9.75(2.56) ^a	14.79(4.44) ^b	16.00(3.84) ^b	20.42(5.07) ^c	50.28***
부모 ⁶⁾	9.15(1.45) ^a	10.08(1.86) ^{ab}	10.64(2.37) ^{ab}	11.75(3.14) ^b	9.74***

*** $p < .001$

1) 교사용 CRS의 '부주의-과잉성' 하위 척도, 2) 부모용 CRS의 '학습 문제' 하위 척도, 3) 교사용 CRS의 '부주의-과잉성' 하위 척도, 4) 부모용 CRS의 '충동-과잉 행동 문제' 하위 척도, 5)와 6) 부모용과 교사용 CRS의 '품행 문제' 하위 척도

는 모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선호' 점수는 비교집단이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세 하위 집단 아동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 비교집단은 6.88로 싫어하는 급우보다 좋아하는 급우의 수가 많았던 반면,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아동 집단은 부적 점수를 받아 좋아하는 급우들보다 싫어하는 급우들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영향' 점수는 '혼합 집단' 아

표 3.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과 비교집단 아동의 또래수용도 점수들의 카이분석 결과 그리고 성과 학년차를 통제한 공변량 분석 결과

또래수용도	비교집단 (n=48)	주의력 결핍 (n=33)	과잉행동 (n=19)	혼합집단 (n=48)	F
사회적 선호	6.88(10.26) ^b	-5.58(15.58) ^a	-5.58(13.14) ^a	-12.23(17.87) ^a	13.39***
사회적 영향	15.33(7.28) ^a	16.70(11.71) ^{ab}	20.22(10.28) ^{ab}	22.98(11.89) ^b	2.93*
또래 지위					2
인기아(%)	19(40)	6(18)	1(5)	5(10)	16.26***
보통아(%)	14(30)	10(30)	8(42)	12(25)	1.92
무시아(%)	10(20)	5(15)	1(5)	1(2)	9.46*
거부아(%)	3(6)	12(36)	7(37)	29(50)	31.33***
양면성아(%)	2(4)	0(0)	2(10)	1(2)	4.47
전체(%)	48(100)	33(100)	19(100)	48(100)	

* $p < .05$, *** $p < .001$

동이 가장 높았고, ‘주의력 결핍 집단’과 ‘과잉행동 집단’, 그리고 ‘비교집단 순으로 낮아졌다. 즉, ‘비교집단’에 비해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학급에서 눈에 더 띄는 아동들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또래지위 범주별로 비교하였을 때도 역시 ‘인기아’는 비교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거부아’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의 세 하위 집단에 주로 분포되었다(표3 참조). 한편, 급우들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는 ‘무시아’는 비교 집단에 유의하게 많았는데, 이는 비교 집단의 사회적 영향 점수가 다른 집단들보다 낮았던 결과와 일관된다.

두 가지 분석을 종합하면,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아동들은 비교집단 아동들에 비해 급우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또래로부터 수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해 주었다.

또래수용도와 품행문제

다음에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아동들에게서 높게 나타난 품행문제가 낮은 또래수용도에 어느 정도나 기여하는지 검증해보았다. 첫째,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품행장애를 부가적으로 통제하고 공변량 분석을 하였을 때, ‘사회적 선호’의 집단간 차이는 여전히 유의하였으나($F_{3,122}=8.12, p=.001$), ‘사회적 영향’의 집단간 차이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교사가 보고한 품행문제를 부가적으로 통제하고 공변량 분석을 하였을 때, ‘사회적 선호’의 집단간 차이는 여전히 유의하였으나,

F값은 다소 감소하였다($F_{3,122}=3.07, p=.03$). 마지막으로, 부모와 교사가 보고한 품행 문제를 모두 통제하고 공변량 분석하였을 때는 집단간 차이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즉,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낮은 또래 수용도는 일정 부분 품행문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도 지지되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아동의 친구관계

본 연구에서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이 맺고 있는 친구관계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조사하였다.

친구관계의 양적인 분석

‘상호적 지명 친구수’는 두 아동이 일치하게 서로를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의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그리고 ‘옆자리에 앉고 싶은’ 친구로 지명한 수로 산출되었다. ‘상호적 지명 친구수’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성과 학년차를 통제한 공변량 분석과 Scheffé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상호적 친구수’의 집단차는 유의하게 나타났는데($F_{3,142}=4.13, p=.008$), 집단별 친구수와 Scheffé 검증 결과를 참고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교집단의 ‘상호적 지명 친구수’는 평균 2.21명($SD=1.15$)으로 가장 많은 친구수를 기록했고, ‘주의력 결핍 집단’($M=1.70, SD=1.40$)과 ‘과잉행동 집단’($M=1.74, SD=1.37$)에서는 조금 감소하였다. 그리고 ‘혼합 집단’은 1.31명($SD=1.22$)으로 비교집단보다 유의하게 적은 상호적 지명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상호적 단짝 친구’의 유무도 조사하

였다.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을 지명했을 때 서로 일치한 아동의 수를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비교집단 아동 48명중에서 26명(54%)의 아동이 ‘상호적 단짝 친구’를 가지고 있었으나, ‘주의력 결핍 집단’은 33명중 14명(42%), ‘과잉행동 집단’은 19명중 6명(32%), 그리고 ‘혼합 집단’은 48명중 16명(33%)만 ‘상호적 단짝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상호적 단짝 친구’를 가진 아동들이 비교집단보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집단에서 유의하게 적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교집단 아동 48명과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χ^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비교집단보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집단들에서 ‘상호적 단짝 친구’를 가진 아동들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4.92$, $df=1$, $p=.03$).

친구관계의 양적인 측면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은 비교집단 아동들보다 상호적 친구가 적었고, 서로가 인정하는 단짝 친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수도 비교집단보다 적었다. 따라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비교집단 아동들에 비해 친밀한 이원적(dyadic)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집단 아동 중에서 단짝 친구가 있는 아동과 없는 아동 비교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집단과 비교집단 아동의 ‘상호적 단짝 친구’ 관계의 질적 차이를 비교하기 전에,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중에서 ‘상호적 단짝 친구’가 있는 아동들(36명)과 없는 아동들(64명)의

행동 장애 정도와 또래수용도 차이를 검증하여 보았다. 두 집단 아동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품행 문제’, 그리고 ‘사회적 선호도’를 비교하기 위해 성과 학년차를 통제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가지 행동 문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선호도’는 단짝 친구를 가진 아동에게서 유의하게 높았다($F_{1,77}=17.75$, $p=.001$). 한편, 두 집단의 또래지위도 비교해 보았는데, 단짝 친구를 가진 아동들의 22%(8명)가 ‘인기아’였고, ‘무시아’는 6%(2명), ‘거부아’는 26%(9명)로 나타났다. 반면에, 단짝 친구가 없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 아동 중에서는 6%(4명)만 ‘인기아’였고, 무시아는 8%(5명), 거부아는 60%(39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들 중에서 ‘상호적 단짝 친구’를 가진 아동은 ‘상호적 단짝 친구’가 없는 아동들보다 행동 문제가 적은 아동들은 아니었으나, 또래들로부터 더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아동들이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집단과 비교 집단 아동의 단짝 친구들 비교

한편,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집단과 비교집단 아동들이 사귀고 있는 단짝 친구들의 행동적 특성도 비교해보았다. 두 집단 아동의 친구들에 대해 그들의 부모와 교사가 보고한 CRS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그리고 ‘품행 문제’ 척도 점수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성과 학년차를 통제하고 일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행동 문제를 보였으나, 교사가 보고한 ‘과잉행동’($M=8.63$ 와 11.81 , $F_{1,41}=6.85$, $p=.02$)와 ‘품행 문

제'(M=10.32와 11.82, $F_{1,41}=4.01$, $p=.05$)에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아동들의 단짝 친구들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아동의 친구들은 비교집단 아동의 친구들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과잉행동을 보이며 품행 문제도 더 많이 보이고 있었다.

상호적 친구관계의 질

친구관계의 질적인 측면은 6가지 친구의 지원과 갈등, 경쟁, 그리고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아동 집단에서 '상호적 단짝 친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세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상호적 단짝 친구'가 있는 비교집단 아동 26명과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집단 아동 36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실시되었다.

상호적 친구관계의 질은 이원적 친구관계에 대해 연구 대상 아동이 보고한 내용과 그 아동의 단짝 친구가 보고한 내용을 비교하는 것도 분석목적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비교집단과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 집단 간 차이와 두 친구의 보고 내용을 동시에 비교하기 위해서 성과 학년차를 통제한 혼합모델 공변량 분석(mixed model ANCOVA)을 실시하였다. 즉, 2 x 2 혼합 ANCOVA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두 가지 수준으로, 비교집단과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집단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집단간 비교 공변량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요인이었다. 두 번째 요인 역시 두 가지 수준으로, 연구 대상 아동의 보고와 친구의 보고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반복

측정 공변량분석을 위한 요인이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한 결과,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와의 갈등 및 경쟁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나 그렇지 않은 아동이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느꼈고(M=3.39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집단)과 M=3.47(비교집단): 1-4점 척도이므로 상당히 높은 수치임.), 그들의 친구가 느끼는 만족감도 역시 높았다(M=3.35과 3.35). 반면에, 연구 대상들이 느끼는 갈등(M=1.83과 1.85)이나 경쟁(M=2.21과 2.04)은 낮은 편이었는데, 그들의 친구들이 느끼는 갈등(M=1.76과 1.74)이나 경쟁(M=2.08과 2.09)도 역시 낮은 편이었다.

친구가 서로 주고받은 사회정서적 지원 중에서 '신뢰', '친밀감', '교제의 즐거움'의 정도에서도,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집단과 비교집단간 차이나, 한 관계 내에서 연구 대상이 친구로부터 받았다고 생각되는 지원의 양과 그들의 친구가 연구 대상으로부터 받았다고 느끼는 지원의 양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서적 안정' ($F_{1,54}=6.66$, $p=.01$), '도움' ($F_{1,54}=4.05$, $p=.05$), '인정' ($F_{1,54}=9.39$, $p=.01$)의 세 가지 지원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림1-3을 참고하면, 비교집단 아동들과 비교할 때,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집단 아동들은 친구로부터 인정을 덜 받기는 했지만, 그들의 친구들이 해준 것보다 친구가 어려울 때 더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주었으며 더 많이 도와주었다.

친구관계와 품행문제

세 가지 상호작용 효과에 품행 문제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부모와 교사가 보고한 품행 문제를 부가적으로 통제한 후, 다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가지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품행 문제가 친구와 주고받은 지원의 양이 다르게 하는데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즉, 품행 문제가 있는 아동들은 단짝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구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칭찬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또래 및 친구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품행 장애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세 번째 가설을 지지한다.

주의집중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이며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또래로부터 거부되고 친한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아동으로 알

려져 왔다. 그러나 선행 연구 결과들을 면밀히 조사하면, 이러한 행동 문제를 보이는 모든 아동들이 그렇다기보다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의 일부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Green et al., 1996). 통계적 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결론을 내리는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 대상의 개인차는 무시되고 집단 전체의 성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소수 아동의 특성은 쉽게 간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들이 어떻게 또래집단에 적응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소수라도 적응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동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의 또래수용도와 친구관계를 조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친한 친구를 사귀고 있는 아동들의 또래 및 친구관계 특성도 부가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선행 연구들의 결과 및 가설과 관련하여 논의하기 전에, 본 연구의 대상이 1-6학년 남녀 아동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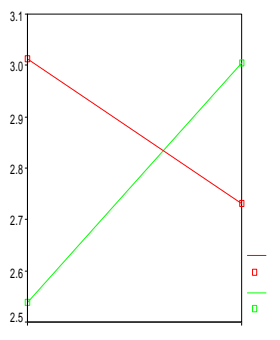


그림 1: 정서적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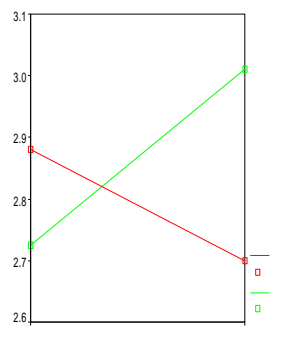


그림 2: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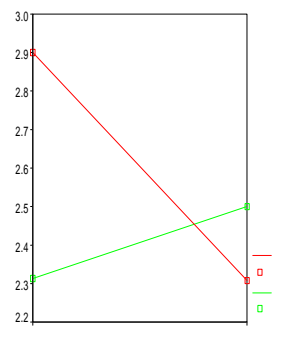


그림 3: 인정

성차와 학년차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 넘어가 고자 한다. 먼저 성차에 관한 결과를 요약하면, 거의 모든 변인에서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행동 문제가 남자 아동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Mash & Wolfe, 2002), 남자 아동보다 여자 아동의 친구관계가 더 긍정적이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이은혜, 1999).

학년차에 관한 결과를 요약하면, 부모가 보고한 행동문제에서는 학년차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교사가 보고한 과잉행동과 품행문제 그리고 아동 자신이 보고한 자신의 친구관계에 관한 일부 변인(정서적 안정, 친밀감, 동료관계의 자극, 경쟁)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과잉행동 및 품행 문제가 감소한다는 결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Wick-Nelson & Israel, 2000)와 일관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향이 부모의 보고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여러 연령의 아동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교사들에 비해서 자신의 자녀를 주로 또래의 다른 아동들과만 비교하는데 익숙한 부모들이 전반적인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추측된다. 아동의 행동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임상 및 연구 현장에서 빈번히 사용되며 부모가 보고하게 되어있는 CBCL(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2001)의 기준이 4세부터 11아동에게 동일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향이 이 연구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아동의 친구관계에서 ‘경쟁’과 같은 부정적 측면의 변인이나 같이 노는 시간을 반영하는 ‘동료관계의 자극’이 감소하는 경향, 그리고 친구가 힘들 때 ‘정서적 안정’을 주는 일이나

친구의 욕구를 민감하게 알아채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친밀감’의 증가는 아동의 사회인지적 능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이 성차 및 연령차가 연구 변인의 일부에서 발견되었지만, 연구 가설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정도의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고 비교 집단 아동 선정에서 성과 연령이 고려되었으므로, 연령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차 및 연령차가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계적 통제를 하는 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이 또래들과 어울리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수용도에 대해 두 가지로 접근하였다. 첫째, 또래들로부터 선호되는 정도를 양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선호’ 점수를 집단별로 비교하는 방법을 실시하였고, 둘째, 개별 아동을 또래지위별로 분류하는 방법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선호’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비교집단 아동들보다 사회적 선호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들(Bagwell et al, 2001; Flicek, 1992; Pelham & Bender, 1982)의 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두 집단 아동들의 또래 지위를 비교하면,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들의 집단에서는 인기아가 유의하게 적었고, 거부아는 유의하게 많았다. 이상의 두 가지 결과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력 결

핍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모든 아동들이 ‘거부아’로 분류된 것은 아니었으면, 일부의 아동들은 ‘인기아’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 가설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친밀한 이원적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비교집단 아동들보다 상호적 친구의 수가 적었는데, 이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Bagwell et al, 2001; Hinshaw & Melnick, 1995)이다. 그리고 서로를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 상호적 단짝 친구를 가지고 있는 비율도 비교집단보다 낮았다. 따라서 두 번째 가설도 지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차이가 개별 아동에게 적용되었을 때, 그 의미는 다소 축소되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 셋 중에서 한 명은 단짝 친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가설은 또래 및 친구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의 품행 문제와 관련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 집단과 비교집단간에 나타났던 ‘또래수용도’와 ‘상호적 친구의 수’ 및 ‘친구관계의 질’에 관한 유의한 차이들은 품행 문제를 통제하였을 때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즉,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들과 비교집단 아동들이 동일한 수준의 품행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두 집단의 또래수용도 및 친구관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아동들의 사회적 적응 문제는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과잉행동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

는 품행 장애 때문이라는 McArdle과 동료들 (McArdle et al., 2000) 그리고 Milich와 동료들 (Milich, Landau, Kilby, & Whitten, 1982)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한편,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 중에서 친밀한 상호적 친구를 가진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의 행동 문제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흥미롭다. 즉, 전자의 아동들이 후자의 아동들보다 주의집중력이 높았다거나, 과잉행동을 적게 보였거나, 아니면 품행 문제가 적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아동 중에서 아주 친밀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행동 문제가 경미한 아동이 아니라, 그것을 보상할 만한 어떤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었다.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다루기 위해, 상호적 친구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단짝 친구를 가지고 있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집단 아동과 비교 집단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했을 때, 두 집단이 친구에게 해준 사회정서적 지원의 정도와 친구로부터 받은 사회정서적 지원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각 친구쌍을 분석의 단위로 해서 주고받은 지원의 양을 비교해보면,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집단 아동들의 상호적 친구관계와 비교 집단 아동의 상호적 친구관계는 ‘정서적 안정’, ‘도움’, ‘인정’의 세 변인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즉,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들은 친구가 해준 것보다 친구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친구가 어려울 때 더 많이 위로해주고, 더 많이 도와주었다. 반대로, 비교 집단 아동들은 자신이 해준 것보다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격려, 그리고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사회적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ingh, Ellis, Winton, Singh, Leung, Oswald, 1998). 따라서 이들이 비교 집단 아동들보다 친구의 지원을 과소평가하여 지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비교 집단 아동들의 친구들은 이러한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비교 집단 아동)가 해준 것보다 사회정서적 지원을 덜 받았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둘째, 이와 같은 결과가 두 집단 아동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부모 및 교사로부터 보고된 비교 집단 아동들이 평균 정도의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보다 칭찬 및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은 반면, 높은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인정을 받을 일을 별로 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동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격려 및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더 적었고 그래서 지원도 적게 받았다고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셋째, 이 결과가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인정 받을 일을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친구를 인정하는 행동,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로나 격려를 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능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비교 집단 아동들은 이러한 능력이 뛰

어날 수 있다), 어려운 친구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아동들이 단짝 친구 관계를 만족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상호적 관계를 분석하기보다는 친구중 한 명의 일방적인 보고를 기초로 분석을 실시했고, 또한 정신병리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친구 관계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는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표본을 통해서 재확인될 필요가 있고, 또한 임상적으로 진단된 ADHD 아동들을 대상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아동들이 단짝 친구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들이 행동문제가 없는 아동들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결과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 중에서 단짝 친구를 가진 소수 아동에 관한 결과이고, 그들의 다양한 사회관계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짝 친구에 대한 행동에 관한 결과라고 한다면, 좀더 가능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일, 이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 결과라면,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들 중 일부의 아동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아동들보다 친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Maturana와 Varela (1980)는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뜻의 아우토포이시스 (autopoiesi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살아있는 시스템과 환경간

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다. 즉, ‘살아있는 시스템’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시스템은 역동적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상과 조절 행위를 통해 자신 스스로를 발달시켜나간다고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과잉 행동을 하는 아동들이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 조건(또래들에게 쉽게 수용되지 않는 조건)에서도 또래와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자신의 발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하는 추론을 하게 한다.

발달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아동기의 사회성 발달에서 친구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또래친구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주고, 아동 자신이 주위로부터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서 안정된 정서를 갖게 도와주며, 자아 개념의 발달에 기여한다(Bukowski & Hoza, 1989). 아동기의 친밀한 친구관계 유무가 성인기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장기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면(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이 시기에 친구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할 수 있다. 따라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들 중에서 일부는 스스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결과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비교 집단 아동들과 비교할 때,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친구들은 비교집단의 친구들보다 과잉행동과 품행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아동들이었다는 결과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들이

비교 집단아동들보다 자신이 받은 것보다 친구에게 사회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했다는 결과는 품행장애를 통제했을 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주의력결핍이나 과잉행동 문제뿐 아니라 품행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단짝 친구에게 받은 것 이상의 지원을 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 연구(Wicks-Nelson & Israsel, 2000)를 참고하면, 품행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유사한 문제를 가진 또래들과 어울리게 되고 이들과의 친교를 통해서 다양한 비행을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들이 과잉행동 및 품행 문제를 가진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서로에 대해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사회·정서적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한다면, 이들이 어떠한 또래집단으로 발전해가게 될지 궁금하다. 따라서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들이 학령기를 거쳐 청소년기까지 어떠한 친구관계를 발달시켜나가는지 종단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점검해 보았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임상가들에 의해서 ADHD로 진단된 아동들이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ADHD 아동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주의력 문제나 충동-과잉행동 문제가 심한 아동의 특성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ADHD로 진단을 받은 환아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했다면, 동질한 비교집단을 선정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아동이 속한 학급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

하는 또래수용도 측정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결과들을 임상 집단을 통해서 확인한다면, 임상 표본과 지역 표본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둘째, 표집의 크기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상호적 단짝 친구관계에서 주의력 결핍 문제만을 가진 아동이나, 과잉행동 문제만을 가진 아동 그리고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아동의 차이를 밝힐 수는 없었다.

이상과 같은 한계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찾기 어려운 시도들이 있었다. 첫째, 양적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차에 관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과 같은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이 맺고 있는 또래 및 친구관계의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각 연구 변인들을 측정할 때,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였다. 아동의 또래관계는 급우들의 지명을 통해서, 친구관계는 관계에 포함된 두 친구 모두의 보고에 기초해서, 그리고 아동의 행동 문제는 부모와 교사 보고를 함께 고려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한 보고자만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유 방법에 의한 변량(shared method variance)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기초로 결론을 내리면,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들은 또래들에게 수용되거나 친밀한 친구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여기에 품행문제

가 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 중에서 단짝 친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들은 만족스러운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자신의 행동문제를 보상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었다.

박은희, 소유경, 김영신, 최낙경, 김세주, 노주선, 고윤주 (인쇄중). 한국어판 Conners 부모 및 교사용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소유경, 노주선, 김영신, 고선규, 고윤주 (2002). 한국어판 부모, 교사 ADHD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1, 283-289.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2001).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이은혜, 고윤주 (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0, 225-242.

조수철, 신윤오 (1994). 파탄적 행동장애의 유형율에 대한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5, 147-259.

Aboud, F. E., & Mendelson, M. J. (1996). Determinants of friendship selection and quality: Developmental perspective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and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87-11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lessandri, S. M. (1992). Attention, play, and social behavior in ADHD preschool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 289-30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ition revised (DSM-III-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rd edition (DSM-IV).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s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40-153.
- Bagwell, C. L., Molina, B. S., Pelham W. E. Jr., & Hoza, B. (2001).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problems in peer relations: prediction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1285-1292.
- Barkley, R. A., DuPaul, G. J., & McMurray, M. B. (1990) Comprehensive evaluation of attention deficit disorder with and without hyperactivity as defined by research criteri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775-789.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 15-45). New York: Wiley.
- Cadesky, E. B., Mota, V. L., & Schachar, R. J. (2000). Beyond words: how do children with ADHD and/or conduct problems process nonverbal information about affect?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1160-1167.
- Coie, J. D., &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tatus: A five year longitudinal study. *Merill-Palmer Quarterly*, 29 3, 261-282.
- Conners, C. K. (1989). *Conners' Rating Scales manual*. North Tonawanda, NY: Multi-Health Systems.
- DuPaul, G. J. (1991). Parent and teacher ratings of ADHD symptoms: Psychometric properties in a community-based sampl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0, 245-253.
- DuPaul, G. J., Power, T. J., McCoey, K., Ikeda, M., & Anastopoulos, A. D. (1998). Reliability and validity of parent and teacher ratings of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symptoms.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6, 55-68.
- DuPaul, G. J., McGoe, K. E., Eckert, T. L., & VanBrakle, J. (2001). Preschool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mpairments in behavioral, social, and school functioning.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508-515.
- Flicek, M. (1992). Social status of boys with both academic problems an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 353-366.
- Gadow, K. D., Nolan, E. E., Litcher, L., Carlson, G. A., Panina, N., Golovakha, E., Sprafkin, J., & Bromet, E. J. (2000). Comparison of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symptom subtypes in Ukrainian schoolchildren.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1520-1527.
- Gentschel, D. A., & McLaughlin, T. F. (2000).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s a social disability: Characteristics and suggested methods of treatment. *Journal of Developmental & Physical Disabilities*, 12, 333-347.
- Greene, R. W., Biederman, J., Faraone, S. V., Ouellet, C. A., Penn, C., & Griffin, S. M. (1996). Toward a new psychometric definition of social disability in children with attention-

-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 571-578.
- Herpertz, S. C., Wenning, B., Mueller, B., Qunaibi, M., Sass, H., & Herpertz-Dahlmann, B. (2001). Psychophysiological responses in ADHD boys with and without conduct disorder: implications for adult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1222-1230.
- Hinshaw, S. P., & Melnick, S. M. (1995). Peer relationships in boys with attention-deficits/hyperactivity disorder and with and without comorbid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7, 627-647.
- Mash, E. J., & Wolfe, D. A. (2002). *Abnormal Child Psychology* (2th Ed). Belmont, CA; Wadsworth.
- Maturana, H. R., & Varela, F. J. (1980). *Autopoiesis and cognition: The realization of the living*. Dordrecht: D. Reidel.
- Milich, R., Landau, S., Kilby, G., & Whitten, P. (1982). Preschool peer perceptions of the behavior of hyperactive and aggressiv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497-510.
- McArdle, P., O'Brien, G., Macmillan, A., & Kolvin, I. (2000). The peer relations of disruptive children with reference to hyperactivity and conduct disorder.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9, 91-99.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elham, W. E., & Bender, M. E. (1982). Peer relationship in hyperactive children: description and treatment. In K. D. Gadow & I. Bialer (Eds.). *Advances in Learning and Behavioral Disabilities* (pp. 365-436). Greenwich, CT: JAI Press.
- Scahill, L., & Schwab-Stone, M. (2000). Epidemiology of ADHD in school-age childre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9, 541-555.
- Singh, S. D., Ellis, C. R., Winton, A. S., Singh, N. N., Leung, J. P., & Oswald, D. P. (1998). Recognition of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by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Behavioral Modification*, 22, 128- 142.
- Weiss, G. (1992).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In G. Weiss (E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pp. 544-563.). Philadelphia, WB: Saunders.
- Wicks-Nelson, R., & Israsel, A. C. (2000). *Behavior Disorders of Childhoo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Peer Acceptance and Reciprocal Friendship in Elementary-School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and/or Hyperactivity

Yun - Joo Koh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Youngshin Kim
Dept. of Psychiatry,
Hallym University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and/or Hyperactivity are reported to have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 This study investigated peer acceptance and quality of friendship amongst the three subtypes of children with inattention and/or hyperactivity and normal controls, association between peer relationship and conduct probl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friendship quality in children with inattention and/or hyperactivity. Hundred children with inattention and/or hyperactivity and 48 controls were selected from the 987 1st to 6th graders based on Teachers' and Parents' DuPaul Scale.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Quality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subjects and their best friends. Teachers and Parents completed Conners scales. Children with children with inattention and hyperactivity were more rejected by their peers and the number of reciprocal nomination of best friend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controls. Conduct problems contributed to these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 In friendship quality, children with inattention and/or hyperactivity having reciprocal best friends received less support for self-validation from their best friends, but provided them with more emotional security and help than controls. Children with inattention and/or hyperactivity showed more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 Nevertheless, children with inattention and/or hyperactivity, who can provide emotional security and help to their friends, had reciprocal best friends.

Keywords: children, peer acceptance, friendship, inattention, hyperactivity, conduct problem